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강 원 덕
강남대학교 교육학과

안 귀 여 루[‡]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 부모 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부모 양육태도,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 자아정체감, 정서지능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이 적합한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성별과 학년을 고려하여 6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 정서지능,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각 변인들 간 단순상관 분석, 독립표본 t-test,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각 변인들 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변인에 대해 남학생보다 정서지능과 진로태도성숙에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변수들의 상관관계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 대한 모형검증을 통해 최적 모형을 선정해서 개별변수의 영향력과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양육태도가 직접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쳐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부모양육태도, 자아정체감, 정서지능,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

[†] 이 논문은 강원덕의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정리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안귀여루, (446-70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Tel: 031-280-3484, E-mail: agyr7@kangnam.ac.kr

한 개인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은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선택들 중에서 진로와 관련된 선택은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발휘하고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대학진학과 사회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시기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에서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진로선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어(김봉환, 김동일, 남상인, 유성경, 임은미, 2001; 정윤경, 2000), 고등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과 진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해 결국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초래된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결정성과 독립성, 확실성에서 다른 나라 청소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진로준비 태도와 행동, 역량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교육과 진로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송민경, 2012).

Super(1953)의 진로발달이론에 의하면 고등학교 시기는 잠정기와 전환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개인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데 현실적인 요인들이 고려되기보다는 교과, 환상,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로계획이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경제적 여건, 진로포부,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그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탐색과 준비를 해야 한다(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8). 이처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업선택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직업 선호에 대해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진로태도성숙이라 한다(지용근, 2002). 또한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진로발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이해와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포함하는 진로준비활동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데(Blustein & Flum, 1999). 이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인지나 태도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의 진로준비를 위한 실천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진로준비행동이다(김봉환, 1997).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4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 연구 자료에서 진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초·중·고 공통적으로 부모로 나타났다. 부모는 청소년들의 진로관련 행동, 목표, 지향적 행동을 모델링 해주고 진로관련 학습경험을 활발히 제공하여, 그들의 직업적 목표에 도달하게 격려하는 제1의 제공자 역할을 하며(Young, Valach, Dillabough, Dover, & Matthes, 1994), 그들의 역할 모델로서,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며, 직업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직업정보와 발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친다(Tuner, Annette, Lapan, Udipi, & Ergun, 2003). 이처럼 부모는 그들의 진로선택과 결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로지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관련 요소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고등학생들이 현명하게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

도록 부모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 양육태도와 진로 관련 변인인 진로태도성숙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여고생들이 부모에 대하여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지각할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가 긍정적일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았고(육근선, 2013),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대 차원이 자녀의 진로태도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차미탁, 2010), 아버지의 자율성과 성취, 어머니의 애정과 합리적 양육태도는 자녀들의 독립성,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요섭, 2009). 그리고 자녀의 진로태도성숙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보다 중요함을 보여주었다(김선영, 2006). 하지만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변인들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아직은 어려운 실정이다(박고운, 이기학, 2007). 이는 고등학생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진로태도를 성숙시키는 일과 더불어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봉환(1997)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을 나타내주는 선별자로서로 정체감을 선택하였다. 진로에 대한 정체감은 자아정체감과 매우 관련이 높다. 진로정체감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에 대한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이해를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하고 안정감을 주는 진로를 선택하고 설계해 나가야한다(김보람, 2013). 즉,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이해가 동반된 성숙한 진로 의식은 자기 탐색을 통해 적성과 흥미,

가치관 등 개인적 특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 준비할 수 있는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으로 이어진다(조명실, 2007).

자아정체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낮은 자아정체감을 갖는 청소년들보다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 긍정적이며 높은 가치를 느끼고 있었으며(안요섭, 2009), 자신에 대해 높은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가진 사람이 역시 진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이기학, 1997). 하지만 자아정체감이 낮은 사람은 동기부여와 의사결정능력에 있어 더욱 큰 어려움을 가지며, 자신이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회적인 요구, 주변 사람들의 기대 등과 같은 외적인 영향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자아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적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Tiedman, 1961).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정적 경험이나 상황에 대한 단절이 아닌 부정적인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정신건강의 상태이며 성적의 향상과 명문대로의 진학만을 강조하지 않고 자아탐색의 시간도 충분히 주고 자아정체감 확립을 통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높고(김길정, 2003), 자아정체감은 진로태도성숙의 모든 하위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 중 특히 미래확신성이 진로태도성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미애, 2006). 이처럼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져 왔으나 자아정체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그나마 소수의 연구들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을 선택하고 학과를 결정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진로준비행동도 진로태도성숙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아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와 더불어 자아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고, 진로를 탐색하고, 목표를 위한 도구를 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진로태도를 성숙시키고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 과정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많은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서의 역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Goleman (1995)와 Mayer & Salovey(1997)는 정서가 진로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인지과정과 상호작용하여 실제로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진로 결정의 복합적인 행동과 관련된 정서의 영향력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중요한 변인으로 정서 지능을 고려했다(Carson & Carson, 1998; Kidd, 1998; Menhart, 1999).

선행연구에서 정서지능의 수준과 진로성숙도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이정순, 2004), 정서지능의 하위변인 정서평가와 정서활용이 진로태도성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주영, 2006). 또한 정서지능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서조절을 제외하고 정서지능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기 정서인식 수준이 높으면 진로준비행동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서인식 수준 역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정서를 활용하여 자신을 동기화시키는 능력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도 긍정적

이라고 했다(정승현, 2010). 이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정서 경험을 사고와 행동을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많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직업 탐색과 직업 헌신에 대한 명확성과 확신이 크다는 점이다(Brown, George-Curran, & Smith, 2003),

한편 청소년은 아동·성인과는 다른 정서를 지녔으며 정서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의 부족과 조절 능력의 한계가 있다(임영식, 한상철, 2002). 청소년기에 정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성인이 된 후에도 성인의 적응 능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성인의 대처능력과 기술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용린, 1997). 청소년들은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이 개인마다 다르며(배진화, 2002),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인지적 변화 경험이 달라진다(Harren, 1979). 이처럼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정신건강의 개인차가 존재하게 된다(조민영, 2005). 즉, 스트레스를 겪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에 의해 조절이 가능 할 수 있다는 것이다.

Keyes(2005)는 진정으로 건강한 정신을 지닌 사람은 정신장애로부터 자유로운 동시에 정신적 웰빙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며, 정신적 웰빙을 경험하는 사람은 스스로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감과 즐거움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보다 많이 경험하며,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보다 적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이 진로선택과 결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문제와 스트

레스를 다루는 방법 중 하나로 정서지능을 이용하면 정신건강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서지능은 부모양육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길준덕, 2010; 김선주, 2013; 이주리, 2002). 청년기까지 성장을 계속하는 정서와 관련된 두뇌 영역은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정서지능의 향상이 가능하고 이것은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Mayer & Slovey, 1997).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지능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부모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의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정서를 자신감 있게 자각하고 적절히 반응하고 대처했다.

청소년기의 청소년들은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등의 정체성적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며(Erikson, 1968),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주변 환경과의 작용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이보배, 2012). 그러므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주로 가족변인이라는 조건에 중점을 두고 실제적 검증을 수행하여, 가족변인 중에서 특히 부모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냈다(최창욱, 2012; 황효진, 2013; Dyk, 1990). 그리고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순희, 2003).

선행연구에서 김은경(2009)은 청소년이 부모 양육태도를 수용적이고 자율적으로 지각할수록 높은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며, 자기에 대한 수용성이

크며, 부모보다는 모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순희(2003)는 부모의 경우에는 수용적 양육태도와 자율적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모의 경우에는 수용적 양육태도와 성취 지향적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고등학교시기의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는 동시에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느낀다. 정서적 안정과 좋은 성역할의 모델이 있으면 자신에 대한 통찰과 자아정체감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직업선택이나 성역할, 가치관의 확립에 있어 심한 갈등을 야기한다(정옥분, 2008). 따라서 건전한 성격의 발달과 진정한 의미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청년기에 이런 갈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자아정체감, 정서지능,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의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관계와 이 변인들에 대한 남녀학생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부모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의 역할을 알아보고 이들 변인에 대한 적합한 관계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검증을 위해 부모 양육태도, 자아정체감, 정서지능,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모형을 연구모형(그림 1)과 경쟁모형(그림 2)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부모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을 매개로 하여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매개모형이다. 경쟁모형은 부모 양육

태도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을 매개로 하여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완전매개모형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그 과정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고등학생이 빠르게 변하는 미래사회에서 자신의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진로상담,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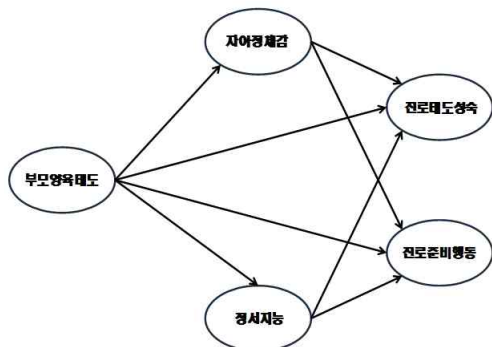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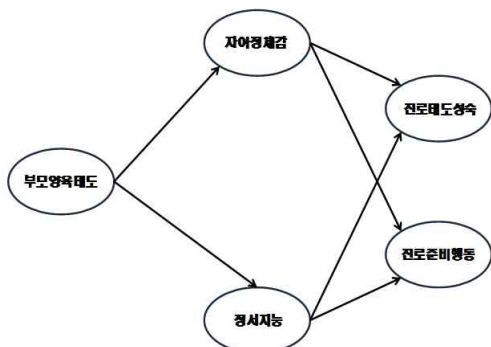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성별과 학년을 고려하여 650명을 표집하였다. 이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6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급별로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에 의한 집단설문조사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자신의 속도대로 읽고 응답에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답하도록 하였다. 이 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25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625명의 자료를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중 남학생은 301명(48.2%), 여학생은 324명(51.8%)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 211명(33.8%), 2학년 221명(35.3%), 3학년 193명(30.9%)이었다.

측정도구

진로태도성숙 척도. 진로태도성숙을 측정하기 위해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Likert식 5점 척도이며, 5개 하위요인 즉,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결정성, 진로선택을 통하여 가치추구 및 내재적인 욕구와 현실적 타협의 정도를 알아보는 목적성, 진로선택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확신성,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적 이해와 준비성의 정도, 그리고 진로

선택에 필요한 진로정보수집에 대한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준비성, 자신의 진로결정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지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지를 나타내는 독립성이며 각 하위요인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의 사전 신뢰도검사에서 Cronbach α 가 모두 0.6을 넘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5개의 하위요인 총 40개의 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태도성숙 Cronbach $\alpha = .91$ 이다(결정성 $\alpha = .89$, 목적성 $\alpha = .86$, 확신성 $\alpha = .77$, 준비성 $\alpha = .79$, 독립성 $\alpha = .69$).

진로준비행동 척도.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박완성(2002)이 고등학생 255명과 대학생 42명 총 297명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와 요인분석을 통하여 ‘진로탐색활동(10문항)’, ‘정보수집활동(5문항)’, ‘직업체험활동(5문항)’, ‘취업준비활동(2문항)’ 4개의 요인으로 명명한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준비행동 검사를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사전 신뢰도검사에서 취업준비활동에 대한 신뢰도는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이는 취업준비활동(14,17문항) 항목은 일반계 고등학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고, 나머지 3요인은 Cronbach α 가 모두 0.6을 넘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3개의 하위요인 총 2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박완성이 실시한 신뢰도에 있어서 진로준비행동의 Cronbach α 는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Cronbach $\alpha = .89$ 로 나타나 있다(진로탐색활동 $\alpha = .81$, 정보수집활동 $\alpha = .77$, 직업체험활동 $\alpha = .80$).

부모양육태도 척도.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Schaefer(1959)가 개발한 설문지를 오성심과 이종성(1982)이 수정 보완하여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세부적으로 4차원 8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 4개의 영역에서 하위영역으로는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이며 각 하위요인별 10개의 문항씩 총 40개의 문항으로 22개의 긍정문항과 18개의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부정문항은 역상 처리하였으며 각 문항마다 부와 모 양육태도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 검사의 채점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는 5단계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는 부모를 더욱 긍정적(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에 점수가 낮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는 부정적(적대, 통제, 비성취, 비합리)이라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 양육태도 Cronbach $\alpha = .88$, 모 양육태도 Cronbach $\alpha = .87$ 이다(부: 애정-적대 $\alpha = .73$, 자율-통제 $\alpha = .65$, 성취-비성취 $\alpha = .67$, 합리-비합리 $\alpha = .72$ 모: 애정-적대 $\alpha = .71$, 자율-통제 $\alpha = .65$, 성취-비성취 $\alpha = .63$, 합리-비합리 $\alpha = .75$).

자아정체감 척도. 자아정체감의 척도는 정체감 개념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아울러 정체감 발달의 모습에 대한 연구를 통합하여 박아청이 다차원적 자아정체감을 개발하고(1996), 타당화작업(2003)을 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척도(KAES; Korean Adolescent Ego-identity Scale)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5점 척도의 검사로서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의

6개 하위요인에 각각 1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춘자(2012)가 사용한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의 6개 하위요인에 각각 6문항씩 총 36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Cronbach $\alpha = .89$ 이다(주체성 $\alpha = .71$, 자기수용성 $\alpha = .67$, 미래 확신성 $\alpha = .73$, 목표지향성 $\alpha = .73$, 주도성 $\alpha = .74$, 친밀성 $\alpha = .62$).

정서지능 척도.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Salvey와 Mayer(1997)의 정서지능 최근 모형 (4영역 4수준 16요소 모형) 입각하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문용린, 광윤정, 이강주(1999)가 제작한 청소년용 정서지능 진단 검사이다. 본 검사는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감정이입 능력, 정서의 사고 촉진 능력, 정서지식의 활용능력, 정서조절 능력 등 5개의 하위요인을 묻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5점의 Likert 척도에서 응답하게 되어 있고 모든 문항이 합산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 Cronbach $\alpha = .82$ 이다(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alpha = .75$, 감정이입 능력 $\alpha = .73$, 정서의 사고촉진 능력 $\alpha = .64$, 정서지식의 활용능력 $\alpha = .66$, 정서조절 능력 $\alpha = .68$).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먼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의 변인들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

자아정체감, 정서지능의 하위변인들의 독립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과 관련하여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잔차(residual)의 독립성(independent)을 검증하기 위해 Durbin-Watson을 살펴보았다. 경로분석을 통해 모형의 구조적 관계와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평가방식으로 Chi-square 값을 의미하는 CMIN와 절대적합지수로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GFI (Goodness of Fit Index)를 사용하였고, 증분적합지수로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rkey-Lewis Index), 간명적합지수로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를 사용하였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를 사용했다.

결 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와 모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양육태도가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부와 모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연구변인들은 모두 $p <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 양육태도는 자아정체감($r = .386$), 정서지능($r = .339$), 진로태도성숙($r = .241$), 진로준비행동($r = .197$)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모양육태도는 자아정체감($r = .354$), 정서지능($r = .318$), 진로태도성숙($r = .250$), 진로준비행동($r = .188$)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

타내고 있다. 자아정체감은 진로태도성숙과 $r=.514$ 이가 있을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로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t-test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부양

태도는 t값이 -1.749, 모양육태도는 t값이 -1.919, 자아정체감은 t값이 -.017, 진로준비행동은

표 1. 연구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계수 (N=625)

변인	평균	표준편차	구성개념간 상관관계 (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4	5
1. 부양육태도	3.5246	.49716					
2. 모양육태도	3.4850	.48921	.703**				
3. 자아정체감	3.2040	.60168	.386**	.354**			
4. 정서지능	3.4134	.37649	.339**	.318**	.341**		
5. 진로태도성숙	3.5109	.52139	.241**	.250**	.514**	.475**	
6. 진로준비행동	2.4852	.51768	.197**	.188**	.322**	.291**	.416**

** $p<.01$.

표 2. 연구변인들의 독립표본 t-test 분석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남학생 (n=301)	여학생 (n=324)	남학생	여학생		
부양육태도	3.49	3.56	.49	.50	-1.749	.081
모양육태도	3.49	3.52	.49	.49	-1.919	.055
자아정체감	3.209	3.20	.60	.60	-.017	.987
정서지능	3.35	3.47	.37	.37	-4.191	.000***
진로태도성숙	2.45	3.57	.52	.51	-2.993	.003**
진로준비행동	2.45	3.57	.55	.49	-1.601	.110

** $p<.01$, *** $p<.001$.

표 3. 정서지능과 진로태도성숙의 하위변인들의 독립표본 t-test 분석 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남학생 (n=301)	여학생 (n=324)	남학생	여학생			
정서지능	정서인식	3.38	3.56	.61	.59	-3.715	.000***
	감정이입	3.33	3.61	.60	.54	-5.981	.000***
	정서사고촉진	3.47	3.55	.55	.53	-1.899	.058
	정서지식활용	3.48	3.67	.54	.58	-4.097	.000***
진로태도성숙	정서조절	3.06	2.94	.56	.59	2.431	.015*
	결정성	3.35	3.46	.88	.89	-1.496	.135
	목적성	3.35	3.51	.78	.75	-2.483	.013*
	확신성	3.30	3.29	.63	.65	.196	.845
	준비성	3.41	3.73	.67	.61	-6.013	.000***
독립성	3.79	3.84	.65	.58	-.908	.364	

* $p<.05$, *** $p<.001$.

t값이 -1.601으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지능은 t값이 -4.191, 진로태도성숙은 t값이 -2.993으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의 평균값이 남학생이 3.35, 여학생이 3.47, 진로태도성숙의 평균값이 남학생이 2.45, 여학생이 3.57로 여학생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서지능과 진로태도성

숙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토대로 정서지능과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t-test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나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서지능의 정서사고촉진을 제외한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지식활용, 정서조절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왔으며 진로태도성

표 4.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진로태도성숙	상수	.150		17.773	.000		
	부애정-적대	.051	.140	2.244	.025*	.387	
	부자율-통제	.041	.085	1.747	.081	.643	
	부성취-비성취	.052	.011	.192	.848	.499	
	부합리-비합리	.050	.050	.878	.380	.468	
	$R=.244, R^2=.059, \text{수정된 } R^2=.053, F=9.770, p=.000, \text{Durbin-Watson}=1.906$						
	상수	.149		17.273	.000		
	모애정-적대	.056	.148	2.219	.027*	.339	
	모자율-통제	.042	.031	.658	.511	.671	
	모성취-비성취	.053	.104	1.888	.059	.499	
모합리-비합리	.051	.015	.249	.803	.411		
$R=.260, R^2=.068, \text{수정된 } R^2=.062, F=11.248, p=.000, \text{Durbin-Watson}=1.910$							

*p<.05.

표 5.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진로준비행동	상수	.149		12.093	.000		
	부애정-적대	.051	.205	3.275	.001**	.387	
	부자율-통제	.040	-.002	-.036	.971	.643	
	부성취-비성취	.052	.137	2.490	.013*	.499	
	부합리-비합리	.050	-.110	-1.943	.052	.468	
	$R=.252, R^2=.063, \text{수정된 } R^2=.057, F=10.482, p=.000, \text{Durbin-Watson}=1.982$						
	상수	.149		11.533	.000		
	모애정-적대	.056	.097	1.444	.149	.339	
	모자율-통제	.042	.042	.872	.384	.671	
	모성취-비성취	.053	.187	3.371	.001**	.499	
모합리-비합리	.051	-.093	-1.523	.128	.411		
$R=.233, R^2=.054, \text{수정된 } R^2=.048, F=8.871, p=.000, \text{Durbin-Watson}=1.983$							

*p<.05 **p<.01.

숙의 목적성과 준비성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 변인들이 각 하위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의 변인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변인인 부모의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독립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의 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표 4, 표 5에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표 4와 표 5에서 부모 양육태도 애정-적대가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고, 부 애정-적대, 부모 성취-비성취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변인들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상관관계는 각 .244, .260, 진로준비행동에 .252, .233으로 상관관계가 있으나, 부모 양육태도의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진로태도성숙에 $R^2 = .059(5.9\%)$, $R^2 = .068(6.8\%)$, 진로준비행동에 $R^2 = .063(6.3\%)$, $R^2 = .054(5.4\%)$ 로 나타나 부모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 값이 $p = .000$ 에서 8.871~11.248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Durbin-Watson는 1.906~1.983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차한계는 모두 0.1보다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변인인 부모의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독립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의 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표 6, 표 7에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표 6와 표 7에서 부모 양육태도 부 애정-적대,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모 애정-적대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 양육태도의 부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모 애정-적대, 성취-비성취가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R^2 = .157(15.7\%)$, $R^2 = .131(13.1\%)$, 정서지능에 $R^2 = .124(12.4\%)$ 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 값이 $p = .000$ 에서 22.000~28.816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Durbin-Watson는 1.951~2.014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차한계는 모두 0.1보다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인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의 독립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의 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6. 자아정체감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자아정체감	상수	.164		9.334	.000		
	부애정-적대	.056	.135	2.276	.023*	.387	
	부자율-통제	.045	.036	.791	.429	.643	
	부성취-비성취	.057	.168	3.221	.001**	.499	
	부합리-비합리	.055	.125	2.325	.020**	.468	
	$R^2=.396, R^2=.157, \text{수정된 } R^2=.151, F=28.816, p=.000, \text{Durbin-Watson}=1.986$						
	상수	.166		10.335	.000		
	모애정-적대	.063	.222	3.451	.001**	.339	
	모자율-통제	.047	.073	1.585	.113	.671	
	모성취-비성취	.059	.053	1.007	.314	.499	
	모합리-비합리	.057	.072	1.231	.219	.411	
$R^2=.362, R^2=.131, \text{수정된 } R^2=.125, F=23.332, p=.000, \text{Durbin-Watson}=1.951$							

*p<.05, **p<.01.

표 7. 정서지능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정서지능	상수	.104		24.040	.000		
	부애정-적대	.036	.194	3.206	.001**	.387	
	부자율-통제	.028	.094	2.015	.044*	.643	
	부성취-비성취	.037	.119	2.229	.026**	.499	
	부합리-비합리	.035	.006	.111	.911	.468	
	$R^2=.353, R^2=.124, \text{수정된 } R^2=.119, F=22.000, p=.000, \text{Durbin-Watson}=2.041$						
	상수	.104		24.253	.000		
	모애정-적대	.039	.183	2.829	.005**	.339	
	모자율-통제	.030	-.018	-.389	.697	.671	
	모성취-비성취	.037	.204	3.834	.000***	.499	
	모합리-비합리	.036	.009	.149	.882	.411	
$R^2=.352, R^2=.124, \text{수정된 } R^2=.119, F=21.955, p=.000, \text{Durbin-Watson}=2.080$							

*p<.05, **p<.01, ***p<.001.

표 8에서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고, 목표지향성, 친밀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R^2 = .421(42.1\%)$, 진로준비행동에 $R^2 = .273(27.3\%)$ 로 나타나 자아정체감이 진로준비행동보다 진로태도성숙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 값이 $p < .000$ 에서 75.024, 38.761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Durbin-Watson는 1.861, 2.074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차한계는 모두 0.1보다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정서지능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의 하위변인인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감정이입 능력, 정서의 사고촉진 능력, 정서지식의 활용능력, 정서조절 능력의 독립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의 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에서 정서지능의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감정이입능력, 정서의 사고촉진 능력, 정서지식의 활용능력, 정서조절능력의 모든 하위변인이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의 사고촉진 능력, 정서지식의 활용능력, 정서조절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의

표 8.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자아정체감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진로태도성숙	상수	.092		23.146	.000	
	주체성	.032	-.031	-.620	.536	.362
	자기수용성	.033	.059	1.116	.265	.336
	미래확신성	.035	.253	4.345	.000***	.275
	목표지향성	.034	.389	6.825	.000***	.288
	주도성	.041	.028	.398	.691	.194
	친밀성	.023	.023	.696	.487	.831
$R^2 = .649, R^2 = .421, \text{수정된 } R^2 = .416, F = 75.024, p = .000, \text{Durbin-Watson} = 1.861$						
진로준비행동	상수	.102		14.867	.000	
	주체성	.036	-.083	-1.452	.147	.362
	자기수용성	.037	.105	1.768	.077	.336
	미래확신성	.039	.118	1.804	.072	.275
	목표지향성	.038	.382	5.986	.000***	.288
	주도성	.046	-.151	-1.937	.053	.194
	친밀성	.026	.125	3.331	.001**	.831
$R^2 = .523, R^2 = .273, \text{수정된 } R^2 = .266, F = 38.761, p = .000, \text{Durbin-Watson} = 2.074$						

p<.01, *p<.001.

하위변인들과 진로태도성숙 간의 상관관계는 .483, 진로준비행동에 .309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나, 정서지능의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R^2 = .233(23.3\%)$, 진로준비행동에 $R^2 = .095(9.5\%)$ 로 나타나 정서지능이 진로준비행동보다 진로태도성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 값이 $p=.000$ 에서 37.662, 13.035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Durbin-Watson는 1.877, 1.986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차한계는 모두 0.1보다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구조적인 관계와 적합성 검증을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부분 매개모형이다. 경쟁모형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을 통해서만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가정하는 완전 매개모형이다. 이들 두 모형 중에서 어느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인지를 알아보고 더 좋은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모형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표 9.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정서지능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진로태도성숙	상수	.177		7.178	.000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038	.113	2.529	.012*	.624
	감정이입 능력	.036	.220	5.427	.000***	.756
	정서의 사고촉진 능력	.047	.121	2.475	.014*	.515
	정서지식의 활용 능력	.041	.156	3.422	.001**	.599
	정서조절 능력	.032	.118	3.256	.001**	.948
$R=.483, R^2=.233, \text{수정된 } R^2=.227, F=37.662, p=.000, \text{Durbin-Watson}=1.877$						
진로준비행동	상수	.191		5.664	.000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041	-.005	-.112	.911	.624
	감정이입 능력	.038	.077	1.746	.081	.756
	정서의 사고촉진 능력	.050	.171	3.215	.001**	.515
	정서지식의 활용 능력	.045	.120	2.422	.016*	.599
	정서조절 능력	.035	.086	2.183	.029*	.948
$R=.309, R^2=.095, \text{수정된 } R^2=.088, F=13.035, p=.000, \text{Durbin-Watson}=1.986$						

* $p<.05$, ** $p<.01$, *** $p<.001$.

연구모형(그림 3)의 경로계수와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부모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C.R.=-1.286, .358, .856, .532)을 제외하고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중다회귀분석

을 통해 부모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미약하지만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다른 변수와의 구조모형 안에서는 부모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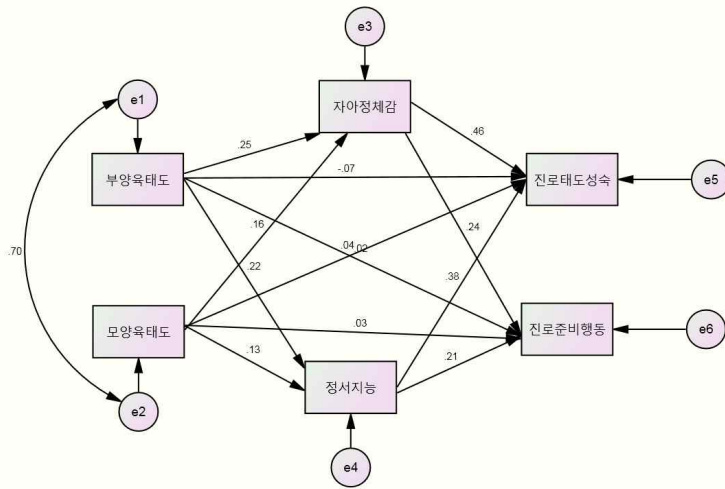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표준화 계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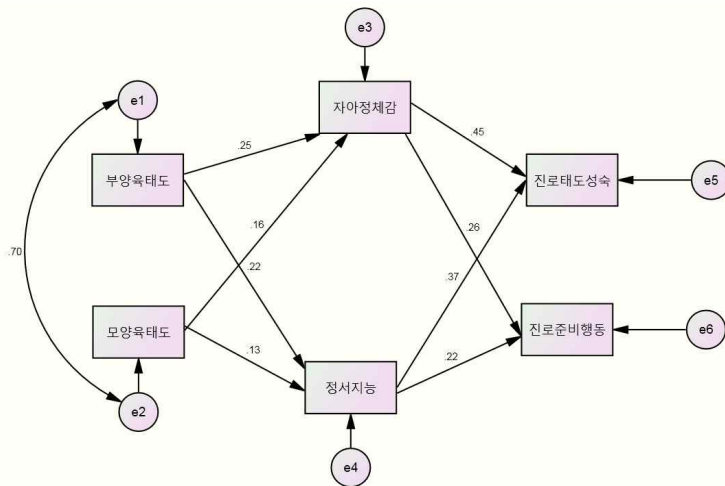


그림 4 경쟁모형(표준화 계수 사용)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완전 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이 본 연구의 연구모형으로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모형(그림 4)의 경로계수와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11과 같다. 모든 변수들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표 12에서 보는 것처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경로분석 적합도 지수를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CMIN(\chi^2)$ 는 낮을수록 좋고, $CMIN(\chi^2)/DF$ 는 일반적으로 3이하이면 수용할 만하며 2이하이면 좋으며, RMSEA는 0.05이하, GFI, TLI, AGFI, CFI가 0.9이상 이면서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이 적합하다(우종필, 2012).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CMIN/DF$ 가 24.411, p 는 .000, GFI는 .975, TLI는

표 10. 연구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
자아정체감	←	부양육태도	.332	.255	.068	4.894***
정서지능	←	부양육태도	.197	.218	.048	4.085***
자아정체감	←	모양육태도	.210	.159	.069	3.051**
정서지능	←	모양육태도	.122	.132	.049	2.483*
진로태도성숙	←	자아정체감	.361	.457	.027	13.380***
진로준비행동	←	자아정체감	.193	.243	.032	6.027***
진로태도성숙	←	정서지능	.430	.378	.038	11.333***
진로준비행동	←	정서지능	.241	.211	.045	5.366***
진로태도성숙	←	부양육태도	-.070	-.068	.047	-1.483
진로준비행동	←	부양육태도	.022	.021	.056	.386
진로태도성숙	←	모양육태도	.042	.040	.047	.891
진로준비행동	←	모양육태도	.034	.032	.056	.601

* $p < .05$, ** $p < .01$, *** $p < .001$.

표 11. 경쟁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C.R.
자아정체감	←	부양육태도	.332	.255	.068	4.894***
정서지능	←	부양육태도	.197	.218	.048	4.085***
자아정체감	←	모양육태도	.210	.159	.069	3.051**
정서지능	←	모양육태도	.122	.132	.049	2.483*
진로태도성숙	←	자아정체감	.353	.447	.025	14.045***
진로준비행동	←	자아정체감	.205	.259	.030	6.885***
진로태도성숙	←	정서지능	.421	.370	.036	11.631***
진로준비행동	←	정서지능	.255	.224	.043	5.944***

* $p < .05$, ** $p < .01$, *** $p < .001$.

.663, CFI는 .955, AGFI는 .740, RMSEA는 .194로 GFI와 CFI를 제외하고 부족한 적합도를 보였다.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경쟁모형의 CMIN/DF가 8.737, $p=.000$, GFI는 .974, TLI는 .663, CFI는 .956, AGFI는 .908, RMSEA는 .111로 연구모형보다 좀더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경쟁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하지만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기에 적합도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경쟁모형의 결과를 기본으로 모형의 추가경로 확인과 모형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모형의 간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모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형의 수정에는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의 이용과 함께 각 측정항목 오차항의 공분산 관계를

이용하여 변수 간 존재하지 않는 관계에 상관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줄어드는 χ^2 의 변화량을 살펴 보았다. χ^2 은 낮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수정지수와 모수의 변화(표 12)를 근거로 수정지수가 제일 큰 순서대로 한 번에 하나씩 공분산 관계를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e5 \leftrightarrow e6$ 인 경우 χ^2 은 12.285, $e3 \leftrightarrow e4$ 인 경우 χ^2 은 44.326 이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e5 \leftrightarrow e6$ 의 공분산을 추가로 설정하는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그림 5). 수정모형은 구체화된 연구모형인 경쟁모형보다 CMIN/DF가 2.457, p 는 .031, GFI는 .993, TLI는 .979, CFI는 .993, AGFI는 .973, RMSEA는 .048로 모형적합도가 향상되었

표 12. 수정지수와 모수의 변화

수정모형 Covariances			MI.	Par Change
e3	<-->	e4	8.043	.029
e5	<-->	e6	38.873	.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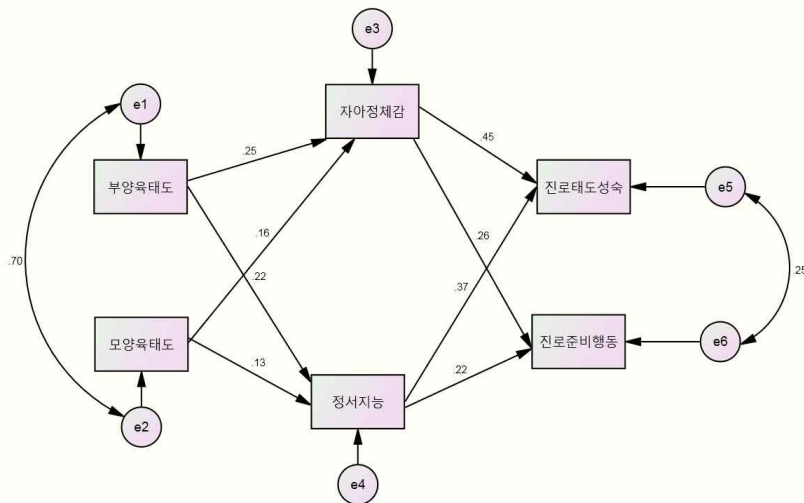


그림 5. 수정모형(표준화 계수 사용)

으며 우종필(2012)에 의해 제시된 적합도 기준을 만족시켰다. 연구모형, 경쟁모형과 최종모형(수정모형)과의 모형적합도 지수는 <표 13>과 같다.

최종 연구모형인 경쟁모형을 통해 부모 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이 각각 독립적으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모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이르는 직접 경로를 제외한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매개한다는 것이다.

최종 연구모형에서 부모 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Amos의 Bootstrap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Bootstrap을 한 결과 표 14와 같이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각 *p*값이 .004, .005,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p*값이 각 .004, .00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 부모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의 매개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 양육태도의 부 애정-

표 13. 연구모형의 비교 분석

구분	CMIN	df	<i>p</i>	CMIN/DF	GFI	TLI	CFI	AGFI	RMSEA
연구모형	48.827	2	.000	24.414	.975	.663	.955	.740	.194
경쟁모형	52.421	6	.000	8.737	.974	.889	.956	.908	.111
수정모형	12.285	5	.031	2.457	.993	.979	.993	.973	.048

표 14.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Bootstrap 결과

경로	계수값	표준오차	C.R.	P값	간접효과	
					계수값	<i>p</i>
자아정체감 ← 부양육태도	.332	.068	4.894	.000***		
정서지능 ← 부양육태도	.197	.048	4.085	.000***		
자아정체감 ← 모양육태도	.210	.069	3.051	.002**		
정서지능 ← 모양육태도	.122	.049	2.483	.013*		
진로태도성숙 ← 자아정체감	.361	.027	13.380	.000***		
진로준비행동 ← 자아정체감	.193	.032	6.027	.000***		
진로태도성숙 ← 정서지능	.430	.038	11.333	.000***		
진로준비행동 ← 정서지능	.241	.045	5.366	.000***		
진로태도성숙 ← 부양육태도	-.070	.047	-1.483	.138	.194	.004**
진로준비행동 ← 부양육태도	.022	.056	.386	.699	.115	.004**
진로태도성숙 ← 모양육태도	.042	.047	.891	.373	.120	.005**
진로준비행동 ← 모양육태도	.034	.056	.601	.548	.071	.004**

p*<.05, *p*<.01, ****p*<.001.

적대,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모 애정-적대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쳐서 자아정체감의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고, 목표지향성, 친밀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양육태도의 부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모 애정-적대, 성취-비성취가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쳐서, 정서지능의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 감정이입능력, 정서의 사고촉진 능력, 정서지식의 활용능력, 정서 조절능력의 모든 하위변인이 진로태도성숙, 정서의 사고촉진 능력, 정서지식의 활용능력, 정서조절 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의의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알아보고, 남녀학생의 변인들에 대한 차이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한 모형 안에서 밝힘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소홀히 다루어 왔던 진로준비행동을 진로태도성숙의 발달과 함께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을 확실한 진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고등학교시절을 보낸다면 대학교에서 습득하는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과 경험들을 졸업

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변인들에 대한 남녀학생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통해서 부모 양육태도, 자아정체감, 진로준비행동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차이가 없었지만 진로태도성숙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지향성과 진로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준비와 관심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서지능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서인식, 감정이입, 정서지식활용, 정서조절에 높게 나타났다. 즉,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표현하는 능력,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 정서를 이해하고 정서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정서적·지적 성장의 향상을 위하여 정서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결과는 고등학교 현장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교 회장이나 학급회장에 여학생들이 많이 출마해서 당선되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진로에 대한 목표와 진로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고 낮은 정서지능으로 인해 또래관계 형성과 학교적응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김리한, 2012; 김태경, 2006; 신현주, 2010) 남학생에게 진로태도를 성숙시키고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연구 결과를 통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은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정서지능과의 연관성이 검증되었다. 진로상담이 진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개인적 주제를 포함하는 진로상담과 심리상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Super, 1951)과 더불어 최근 들어 개인에게서 진로 문제만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내담자를 다양한 역할과 활동을 하는 전체적인 인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더욱 부각되었다(Kidd, 1998; Richardson, 1996). 따라서 진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일반 심리 상담을 통한 자아정체감 형성과 높은 정서지능은 고등학생의 주요 진로발달 과업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선행 연구들은 진로발달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정서적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진로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심리 변인인 자아정체감과 더불어 정서 변인인 정서지능의 영향을 한 모형 안에서 밝힘으로써 심리 변인과 정서 변인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연구 결과는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역할에 대해 상담에서의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부모 양육태도는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을 매개로 하여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은 부모가 진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영향력은 직접적으로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아,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 부모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고등학생의 심리적인 마음의 결과로 보

여 진다.

가족 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정체감 형성과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자아정체감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 궁극적으로는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자아정체감의 미래확신성, 친밀성이 정서지능에, 미래확신성과 목표지향성은 진로태도성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목표지향성과 친밀성은 진로준비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고등학생이 진로태도를 성숙시키고 진로준비행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학생 자신의 장래 할 일에 대한 확신과 장래의 자아상을 파악하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려는 의지와 타인과의 친밀성의 유지가 필요하다. 이런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친밀성을 갖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해 수용적, 헌신적이며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언제라도 부모가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며, 특히 아버지가 자녀의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자녀에게 달성하도록 격려해 주며 자녀에게 적극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끈기 있게 목표했던 일을 성취하도록 하며, 자녀에게 일의 동기나 근거의 제시를 요구하며 자녀와의 약속을 중시하며, 자녀교육에 이성적이며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건강한 부모 양육태도의 요인들이 정서지능의 요인들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구결과에서 정서지능의 대부분의 하위요인이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의 사고촉진능력, 정서지식의 활용능력, 정서 조절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정서지능이 높은 학생들이 높은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능력은 아버지의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와 어머니의 애정-적대, 성취-비성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정서지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공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가지고(Aremu, 2004), 이러한 양질의 대인관계와 대인관계 만족도 및 높은 사회적 기술은 정보수집 등을 포함하는 진로탐색을 비롯한 진로결정 및 진로목표 성취와 관련한 과제를 잘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진현정, 2011). 따라서 부모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정서지능이 높고, 정서지능이 높으면 진로결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이러한 자신감은 진로태도를 성숙시키고 진로준비행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를 무시하고 거부하며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며, 비난과 체벌을 자주 사용하고 자녀의 단점을 강조하며,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자녀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완수에 무관심하고 새로운 일이나 경험, 호기심에 대한 연구에 비협조적일 때, 아버지가 권위만을 강조하고 통제적이며 엄격하고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자녀에 대해 간섭이 심하고 설명이나 설득보다 즉각적이고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할 때 자녀의 정서지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낮은 정서지능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며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의 정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영하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어 진로발달의 지체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고등학생 진로상담에서 내담자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정서지능 발달과 관련하여 부모와의 관계, 양육태도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의 합리적인 진로 선택과 결정을 위한 교육에 앞서 자녀와의 친밀하고 애정적인 관계를 통해 청소년기의 자녀 스스로가 부모와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정서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자녀 교육 방법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의 연구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6개의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인 1,2,3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제한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모든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표집 대상을 다양한 지역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를 포함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정의 분위기, 경제적·사회적 수준, 문화적 배경, 부모와 자녀의 요소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성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 분류 방법이 학자들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사용한 부모양육태도 척도는 자녀의 정의적, 인지적 특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이 다르게 나타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여 IQ(Intelligence Quotient)처럼 몇 개의 하위 검사 점수로 수치화하기가 어려우며, 감정의 통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필 평가, 개인 간 비교에 의한 서열화가 어렵다. 무엇보다 복잡 다양한 정서지능의 영역을 EQ(Emotional Quotient)라는 총점수로 나타내는 것은 별 의의가 없다(문용린,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의 각 하위요소를 청소년기에 발달시켜야 할 정서적 요소들의 심층적 탐색으로 사용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상호적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고등학생만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바탕으로 연구를 실시했기 때문에 자료가 한 측면에만 치우쳐 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정체감, 정서지능,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은 진로교육을 위한 부모와 자녀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 대상은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보고식 진로준비행동의 측정이 대학진학준비활동으로 제한되어 진로의 선택과 결정이 대학과 학과의 선택과 결정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을 위한 보다 다양한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진로선택은 어느 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이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연령에 따라 발달적으로 진행되

는 일종의 과정이므로(Phinney, 1992),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시기적인 작용과 이들 변인들 간의 조합적인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시기를 한정적으로 진로 발달과 관련된 많은 변인들 중에 부모 양육태도, 자아정체감, 정서지능 변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의 진로발달 단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의 차이와 이들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연구는 진로 발달 단계에 따른 진로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진로교육이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자신의 흥미와 적성, 능력,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과 직업세계를 정확하게 탐색한 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현명한 진로선택과정을 경험하고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발달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자신의 멋진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장래의 희망진로를 정확하게 갖지 못하고, 부모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학창시절 의미 없이 보내지는 시간들을 꿈을 찾고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도록 부모와 교사들이 도울 수 있다면, 학생 스스로도 자기의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통해 향후 건강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주영(2006). 부모애착과 정서지능이 자기지각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덕(201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및 자아 탈력성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길정(2003).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리한(2012). 학령기 아동의 정서지능과 놀이성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람(2013).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김동일, 남상인, 유성경, 임은미(2001). 청년층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개발. 서울: 중앙고용정보원.
-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2008).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선영(2006). 예술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부모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 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주(2013). 정서지능 수준에 따른 초등 영재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경(2006). 아동의 정서지능과 또래 및 친구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 곽윤정, 이강주(1999). 정서지능 연구의 성과와 전망.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박고운, 이기학 (2007). 진로결정자율성 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409-422.
- 박순희(2003). 여자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칭(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7(3), 373-392.
- 박아칭(2004). 청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단계의 특성분석. 교육심리연구, 18(1), 301-312.
- 박완성(2002). 고교생의 진로자아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과의관계: 심리적 독립성, 성역할 정체감,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춘자(2012). 활동중심 품성개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정체감 및 친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진화(2002). 고등학생들의 학교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주(2010). 정서지능이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송민경(2012).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1: 진로준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요섭(2009).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11(1), 1-15.
- 우종필(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 Amos 4.0 ~20.0 공용. 서울 : 한나래아카데미.
- 육근선(2013).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자아분화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애(2006). 중학생 성별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진로 성숙도 차이.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보배(2012).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순 (2004). 여고생의 정서지능과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리(2002). 아동의 정서지능과 관련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 23(3), 65-78.
- 임영식, 한상철(2002). 청소년 심리의 이해. 서울: 학문사.
- 정승현(2010). 정서지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2008).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윤경(2000).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유형 이해를 위한 탐색적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3(1), 143-163.
- 조명실(200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민영(2005). 중·고등학생들의 학교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스트레스 대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용근(2002). 대학생의 가치관 명료도가 진로태도성숙 및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현정(2011).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미탁(201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창욱(2012).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효진(2013).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emu, A. O. (2004). A Confluence of credentialing, career experience, self-efficacy, emotional intelligence and motivation on the career commitment of young police in Ibadan, Nigeria. *Career commitment of Young Police*, 28(4), 609-618.
- Blustein D. L., & Flum. H.(1999). *A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of interests and exploration in career development*. Davies-Black Publishing.
- Brown, C., George-Curran, R., & Smith, M. L. (2003). The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career commitment and decision-mak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379-392.
- Carson, K. D., & Carson, P. P. (1998). Career commitment, competencies, and citizenship.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6, 195-208.
- Dyk, P. H. (1990). *Family relations factors that facilitate or inhibit middle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tah State University.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Keyes, Corey L. M.(2005). Mental Illness and/or Mental Health? Investigating Axioms of the Complete State Model of Heal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3), 539-548.
- Kidd J. M. (1998). Emotion: An absent presence in career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2, 275-288.
- Menhart, S. F. (1999). Emotional intelligence: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career succes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 & Engineering*, 59(7-B), 37-48.

- Phinney, S. D. (1992). The multi 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 A new scaling technique. *Human Organization, 31*, 403-410.
- Richardson, M. S. (1996). *From career counseling to counseling / psychotherapy and work, jobs, and career*. In M. L. Savickas & W. B. Walsh (Eds.), *Handbook of career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pp. 347-360). Palo-Alto: Davis-Black.
- Salovey, P., & Mayer, J. D.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J.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 Basic Books.
- Super, D. E. (1951). The criteria of vocational success. *Occupations, 30*, 5-8.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Tiedman, D. V. (1961). Decision and vocational development : A paradigm and its implication.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 15-20.
- Tuner, S. L., Annette, A., Lapan, R. T., Udipi, S., & Ergun, D. (2003). Th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Measurement & Evaluation in Counseling & Development, 36*, 83-94.
- Young, R. A., Valach, L., Dillabough, J., Dover, D., & Matthes, G. (1994). Career reserch from an action perspective: The self-confrontation procedur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3*, 185-196.

원고접수일: 2015년 1월 17일

논문심사일: 2015년 3월 21일

게재결정일: 2015년 11월 12일

The Influence of parental nurturing attitude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Preparedness of High School Students

Wonduck Kang Gwi-Yeo-Roo Ahn
Kangnam Universit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how parental nurturing attitude perceived by highschool students would influenc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preparedness behavior, 2)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ego ident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A total 625 students from high schools in Gyeonggi Province were chosen as subjects. Study Instruments included parental nurturing attitudes scale, ego identity scale,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preparedness behavior scale.

Our results revealed that parental nurturing attitudes had a direct influence on ego ident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addition, ego ident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had a direct influence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preparedness behavior. Moreover, parental nurturing attitudes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had an indirect rather than a direct influence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preparedness behavior via ego-ident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e significance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parental nurturing attitudes, ego identity,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attitude maturity, career preparedness behavior